오륙도 칼럼

남구 지역사의 교육 콘텐츠, 분개염전

류 승 훈

지역문화진흥법이 지난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해 동안 아옹다옹했던 국회가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에 이 법이라도 통과를 시켰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기초자치단체도 문화재단의 설립이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동호회 활동도 지원이 가능한 법률이다. 지역 문화의 자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법은 그 동안 지역문화예술인의 숙원이기도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문화 혹은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문화의 의미 혹은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것 같다. 다시 말해 지역문화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문학적 시각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지역문화진흥법은 그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근거로만 활용될 공산이 크다.

지역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박물관의 전시 콘텐츠는 지역사를 기반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지역박물관의 주요 고객은 초등학생들이다.

지역사 하찮게 여기는 풍토

내가 근무하는 부산박물관을 찾는 가족들도 대개 어린이들의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온다. 어린이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학교 교과서에서 지역사에 관한 내용이 빈약한 탓도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차라리 낫다. 상급 학교의 역사 교과서로 갈수록 중앙의 역사에 치우쳐 있고,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역사'를 '국가와 중앙의 역사'로 생각하기가 십상이다.

역사 교육이 중앙의 역사로 편중된 배경에는 좁은 영토 위에서 싹튼 중앙집권적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를 역사와 사회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연구자, 문화기관, 지방자치단체들도 한번쯤 성찰을 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의 역사를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지역의 역사는 서울의 역사에 흡수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역의 역사교육은 대단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발 딛고 사는 땅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는 게 우선이다.

남구의 지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가 용호동의 분개 염전이다. 조선시대 동래의 남촌면(현 남구 일대)에는 소금을 굽는 염전이 몰려 있었다. 동래의 염전 가운데 남촌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었다. 동래 백성들은 남촌면의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대부분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촌면 염전 가운데 용호동의 분개염전이 가장 유명했다. 지금은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지만 과거 이곳은 해풍에 실린 짠 내가 가득 밀려오는 염전이었다.

염전史에서 분개염전 중요

우리나라의 염전 역사에서도 분개 염전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구한말 일제는 인천의 주안에 천일염 시험장을, 동래의 용호리에는 전오염 시험장을 세우게 했다. 천일염과 달리 전오염(煎熬鹽)은 바닷물의 염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친 후 끓여서 생산하는 소금이다. 분개 염전에 세워진 전오염 시험장에서는 한국식과 일본식을 절충한 새로운 제염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편, 분개 염전은 서해안의 천일염에 밀려난 전오염이 마지막까지 생산되었던 장소였다. 이렇게 분개염전은 우리나라 소금의 역사에서 상징적 장소이건만 과거 염전이었음을 알려주는 표석조차 찾을 수 없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금 전시관을 세워 아이들에게 소금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남구의 어린이들은 고층 아파트 숲을 볼 뿐이며,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염전의 역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인 것이다.

소금이 물에 녹듯이 사라진다는 옛말이 있다. 남구 역사의 긴요한 교육 콘텐츠인 분개염전을 이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작지만 큰 역사, 소금'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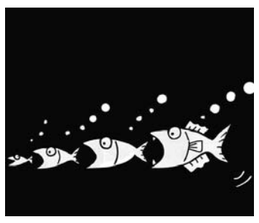
신선대 <216>

채 규종

선용의 1000자 지혜 116

세상의 순리

누가 나를 유심히 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노리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무척 기분 나쁠 것이다. 불쾌하여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 눈으로 나를 볼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그를 섭섭하게 한 것이 있나?' 온갖 생각이 다 들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그가 나에게 관심이 많군.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야. 그가 관심을 갖는 만큼 더욱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대가 예뻐 보이고 하는 일도 신이 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과 관계있는 일이라면 어떨까?



장자(莊子)가 활을 갖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한여름이라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는데 그 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다. '마땅한 사냥감도 없는데 저 놈이라도 잡아가야겠다.' 고 생각하며 조용히 활을 들었다. 그런데 그 때, 앞쪽 나뭇가지에 매미 한 마리가 보였다. 그리고 그 뒤쪽에 톱날 같은 앞발을 치켜들고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마귀가 있었다. 장자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뿐이 아니었다. 조금 전 그 까치가 날아와 매미를 노리고 있는 사마귀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까치는 소리 없이 나뭇가지에 앉아 사마귀를 덮치려 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장자가 바로 까치를 겨냥하고 활을 쏘려는 순간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 했다. 장자는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았다. 왜냐하면 매미와 사마귀 그리고 까치, 이 모두가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 겨냥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까치를 노린 것은 바로 내가 아닌가?" 장자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때 고함소리가 들렸다. "웬 놈이냐?" 귀가 크고 무섭게 생긴 남자가 막대기를 들고 장자 뒤에 서 있었다. "아주 나쁜 놈이로구나. 이 숲이 누구의 것인 줄 모르느냐? 주인 허락도 없이 사냥을 하다니 당장 관가로 끌고 가서 혼을 내어줄 테다!"

먹고 먹히고, 쇠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흥하는 것이 있고, 기우는 것이 있는가 하면 솟은 것이 있다. 이 모두가 세상의 순리이며 현묘한 이치가 아닐까?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불법주차 근절을

대연고개에서 남구청 쪽으로 진입하는 길목 입구부터 편의점 앞까지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너무 많아 통행이 힘들고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통행이 원활해지도록 불법주차 근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매자(대연동)

대연역 환경미화에 좀 더 관심을

지하철 대연역 주변은 유엔기념공원,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등 문화의 거리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대연역 에스컬레이터 발판에 얼룩이 있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미화원 분들 고생하시지만 조금만 더 신경써서 청소를 해주셔서 상쾌한 마음으로 관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성대 교차로 불법주차단속을

평소 출퇴근길에 경성대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교차로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다. 그런데 용호동 방면으로 진입하는 2차선 길목은 1차선을 택시들이 점거하다시피 하여 사실상 1차선 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평소에도 혼잡한 이 길은 퇴근시간이 되면 문현동과 남천동 두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뒤엉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이 혼잡해진다. 그로 인해 진입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다 번화가라 사람이 많아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크다. 수시로 불법주차를 단속해 원활하고 안전하게 통행이 되었으면 한다.

박창혁(용호동)

친절한 동주민센터 직원 칭찬

대연1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 박소현 공무원을 칭찬하고자 글을 씁니다.

1977년 작고하신 부친의 말소된 주민등록대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연1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참고로 부친이 사셨던 곳은 대연3동이었고, 양산시청에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하기 전의 오래된 서류라 일일이 손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 공무원은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처리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대연3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협조해 부친의 말소된 주민등록대장을 확인해 빠른 시간 안에 발급 받게 도와줬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움을 박소현 공무원에 보내면서, 새해를 맞아 이런 공무원을 남구민에게 알리고 싶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완(대연동)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차량 정체 해소위해 불가피

진남로 70번길,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조절해달라는 대연동 정돌순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경성대 입구 보행자 신호는 수영로(대남교차로~경성대)의 양 방향 직진신호 후 약 10초 후에 경성대 입구 보행자 신호등이 약 35초 들어오고 이후에는 모두 적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면과 황령터널에서 경성대방면의 우회전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신호운영을 하고 있으니 수영로의 직진신호 모두 보행자 신호 등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 양지 바랍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경위 박두천>

통행량 검토후 빠른 시일내 조치

대연동 못골사거리 보행용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용호동의 박재혁씨의 건의에 답변드립니다. 못골사거리 디지털프라자와 하이마트 사이 보행신호등 설치는 빠른 시일내 보행자 및 차량 통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경위 박두천>

상인, 주민 의견 수렴 후 검토

못골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자는 대연 6동의 박은숙씨의 지적에 답변드립니다. 해당지역은 마을버스 노선으로 일방통행 지정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로서 일방통행은 반대의견이 많아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장번영회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강병철>

「설」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 생활쓰레기 배출일자

일 자	1.30.(목)	1.31(금)(설날)	2.1(토)	2.2(일)
배출여부	배출금지지	배출금지지	배출금지지	정상배출 (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배출시간 : 해진 뒤부터 ~ 23 : 00까지
○ 수거업체
▷(자)보수산업(628-1236) - 대연3, 용호(LG1단지 제외), 용당, 우암, 감만동
▷(주)우성물산(624-8282) - 대연(대연3 제외), LG 1단지, 문현동

■ 나의 생각

"후손위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찬성 왼손잡이가 비로소 왼손 쓰는 격"

김 효 연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 중에 변호사 송우석이 달동네에 사는 국밥집 아주머니 집을 찾기 위해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고 이골목 저골목 헤매는 모습이 잠시 나온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스쳤다. '저래 가지고는 절대 못 찾지'.

올해부터 전면시행된 도로명주소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는 도로명주소가 되레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4000억 혈세도 낭비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나는 늦게나마 도로명주소가 강제 시행된 건 잘한 일이라 본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외국인도 지도 한 장만 들고도 배낭여행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덕택이다. 우리는 어떨까. 솔직히 우리의 지번주소는 난수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태생 자체가 길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일제의 토지 수탈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지번 안에 수많은 번지수가 칵테일처럼 뒤섞여 있다. 지번주소 체계에서는 배테랑 우편배달부가 아니고서는 집을 정확히 찾아가기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식이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어느 한 지점의 위치만 알면 나머지 주소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반듯한 땅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선진국의 도시들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금의 주소체계 보다는 훨씬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다.

100년 간 내려온 습관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후손들에게도 나쁜 관행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더 큰 혼란이다.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불가피한 희생이다.

사회적 편견으로 왼손잡이가 평생 오른손을 강요당하다가 갑자기 왼손을 쓰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어찌 오른손을 쓰며 겪은 불편에 비할까.

도로명주소는 왼손잡이가 비로소 왼손을 사용할 자유와 편리함을 획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일부 혼선은 병을 고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뤄야 하는 성장통이자 명현현상일 것이다. 이는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몫이다. 달리 선택은 없다.

프리랜서

아름답게 지는 해

30년을 전후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희에게도 환희와 보람이 있고, 회한과 아쉬움도 남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숱한 세월 속에 고맙고 죄송한 일이 어찌 한, 둘뿐이며, 원망이나 섭섭함인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 그 모든 일들은 과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되려함입니다. 추억은 애틋하고 아름답기에 저희도 다 털고 가볍게, 아름다움과 고마움만 안고 떠나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떠나는 마당에 서니 문득 영화로 더 유명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란 레마르크의 소설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병사 하나쯤 죽어도 '이상 없다'고 한 전선보고처럼 말단 간부 한, 둘 사라져야 별다른 영향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떠나는 마음 속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급변하는 소용돌이를 앞둔 듯 절박합니다. 굴레를 벗는다는 홀가분함과 정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이 서로 뒤엉켜 싸움질도 합니다. 아마도 축하와 이별의 이 싸움은 이별이 승자인가 봅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아이는 조르고 보채다가 일 나가는 엄마를 기어이 울립니다. 겨울 가로수의 앙상한 가지 끝에 나뭇잎 몇 개가 대롱거립니다. 울다 지친 영안실 상제들도 발인제에선 또 울음보가 터집니다. 이별이 아쉽고, 두렵고, 싫어서 잎은 팔랑대고, 아이는 보채고, 상제는 다시 슬퍼합니다. 다 같은 이별도 이처럼 한동안의 헤어짐과, 함께 할 수 없는 떨어짐과, 영영 볼 수 없는 떠남으로 격이 집니다.

이제 이별의 시간입니다. 어떤 애원과 기도도 소용없이 여러분과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는 일상을 함께 할 수 없는 날이 기어이 저희에게도 오고야 말았습니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하는 일도 막상 닥치니 그저 착잡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사히 정년을 맞는 축하의 자리 한편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운 까닭입니다.

이 아픔이 곧 수십 년 쌓인 정입니다. 바라보면 미소가, 마주치면 웃음을 주는 얼굴, 얼굴들. 눈에 익은 공간, 귀에 박힌 이름. 이런 익숙한 것들과 헤어짐이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진정 두려운 것은 떠남은 곧 잊혀짐의 시작이기 때문이며, 잊혀진다는 것은 '우리'에서 '남'이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여러분과 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여러분의 고마운 마음, 따듯한 우정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보따리를 싸매며 저희는 아름답게 지는 해가 되려합니다. 비록 용렬한 저희지만 여러분도 부디 가끔은, 석양을 보듯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동안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긴 세월 길, 동행해주신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모두께, 다시 한번 머리 조아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2013. 12. 24.
공로연수 떠나는 직원 일동

■ 독자의 일기장

다섯 아이 키우는 두례씨의 하루

나는 다섯 아이를 둔 다둥이 엄마다. 요즘 같은 사회분위기에 맞지 않는 간 큰 엄마이다.

새근새근 꿈나라에 빠진 두 살 막둥이를 챙겨 아기 아빠와 이른 하루를 시작한다. 어느새 분주해지는 손길,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복덩어리들과 어떻게 놀까?" 행복한 고민에 잠시 빠져 본다.

따뜻한 봄, 무더운 여름, 풍성한 가을 그리고 코끝 시린 겨울, 시계추처럼 돌아가는 계절과 일상들. 바쁜 시간 속에서 나의 청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들과 함께 였다.

하루 장사를 준비하면서도 짬을 내 복덩이 넷을 배움터로 보낸다. 내 마음과 눈빛을 알기라도 하듯 너석들은 아쉬움과 짠함에 0.1초라도 더 엄마의 얼굴을 눈에 담아가려 애쓴다.

그러고 나면 "어서 오세요"하며 손님을 받아야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에서 아기 아빠를 도와 면을 놋그릇에 담고 육수를 붓는다. 눈빛 반짝이며 맛과 정성을 담아 본다.

가게가 잠시 한가한 틈을 타 막둥이 젖도 물리고 포대기에 업어 어부마하며 낮잠을 재운다. "아가야, 엄마 때문에 너도 바쁘구나, 큰 아가야, 작은 아기 챙기느라 너도 바쁘지?".

희랍어로 '호르메(horme)'는 '본능적인 힘'이라고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생명의 충동' 뭐 그런 어려운 뜻이었던 것 같다.

풍족한 환경도 재능도 인맥도 없지만,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로 인해 비로소 '호르메'의 의미를 알게 되었구나.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간 큰 용기가 생겼단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다섯 아이의 순수함 그리고 기적에 늘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엄마도 성장한단다. 다섯 아이의 삶 속에 엄마의 삶이 녹아있음을 느낀다. 우리 복덩이들이 고귀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마음 속 일기장에 '호르메'를 적어본다.

강두례(용호동)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